

■ 프랑스 형태별 음반 판매량 추이(2006~2010)

(단위: 백만 장)

구분		2006	2007	2008	2009	2010	연평균성장률
오프라인 음반	CD	75.7	62.6	53.8	51	48.4	-10.6%
	뮤직 비디오	5.7	4.9	3.2	3.4	3.3	-12.8%
	기타	18.2	8.2	5	0.3	1.8	-43.9%
디지털 음반	싱글 트랙	5.9	10	21.5	30.8	35.1	56.2%
	디지털 앨범	-	-	2.1	3.3	3.8	34.5%

*뮤직비디오에는 DVD와 VHS가 포함됨. 기타는 싱글, 레코드판, 카세트와 같은 매체가 해당되며 싱글 트랙은 온라인 트랙 판매만 해당됨.

※출처: IFPI (2011) 재구성

- 형태별 음반시장을 구분해보면, 오프라인 음반으로서 CD(Compact Disc), 뮤직비디오(DVD, VHS포함), 기타(싱글, LP, 카세트테이프 등)가 있으며 디지털 음반에는 싱글트랙(온라인 트랙)과 디지털 앨범이 있음
- 2010년 프랑스의 오프라인 음반은 총 5,350만 장이 판매되었는데 이 가운데 CD가 4,840만 장(90.5%), 뮤직비디오 330만 장(6.2%), 기타 180만 장(3.3%)이 판매되었음. 또한, 디지털 음반으로는 싱글트랙이 3,510만 트랙, 디지털 앨범은 380만 장이 판매되었음
- 한편, 대표적인 음반 매체인 CD는 2006년에 비해 2010년이 대폭 감소한 수준(CAGR: -10.6%)이지만 싱글트랙(CAGR: 56.2%)과 디지털앨범(CAGR: 34.5%)은 판매량이 급증하였음

